

# 같은 선단 운반선, 금성호 침몰사고 지켜만 봐

### 제주해양경찰서 선원법 위반 혐의 A호 선장 입건 구조의무 위반 조사... 선사 상대 증거 은닉 여부도 해경 "정확한 사고원인 선체 인양해야 알 수 있어"

제주해상에서 침몰한 135급금성호의 선단 중 운반선 한 척이 사고를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신고 및 구조 활동을 벌이지 않은 것으로 해경 수사에서 드러났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 위반 혐의로 A호 선장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8일 135급금성호 침몰시 인명구조를 위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135급금성호와 같은 선단(운반선)으로 당시 금성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부산선적 129t급 대형 어선인 135급금성호는 여러 배와 함께 조업

하는 '선망어업'에서 고기 잡이 역할을 맡은 '본선'이다. 선망어업에 선 본선이 배 주변에 대형 그물을 둘러쳐 고기를 잡으면 주변에서 대기하던 '운반선'이 접근해 그물 속에 모인 고기를 퍼 날라 자기 배로 옮긴다.

A호는 금성호가 복원력을 잃고 빠르게 뒤집히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다른 어선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벌일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획물 위판을 위해 부산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선사를 상대로도 A호 회항 관여 및 사고 관련 증거 은닉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해경은 금성호 복원력 상실의 원인으로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해경은 선박 검사와 자체수리 이력, 보험공제내역 등 전반적인 유지·보수 관리 사항과 함께 불법 증·개축 여부 등 선체 관리부실 여부 등을 살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당시 침몰해역이 기상특보가 내려지지 않았던 점, 선박 CCTV 확인 결과 해상 기상이 양호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양망 과정에서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이 금성호가 복원력을 상실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단,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은 선체를 인양해야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금성호 침몰원인은 어획물로 인한 복원력 상실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선장과 어로장이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선적 129t급 선망 어선 135급금성호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km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한국인 16명, 인도네시아인 11명) 중 15명은 인근 선박에 구조됐지만 이 중 심정지 상태였던 한국인 2명이 숨졌다.

또 실종 상태였던 나머지 12명(한국인 10명, 인도네시아인 2명) 중 한국인 선원 2명이 지난 9일과 10일 사이 선체 주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으며, 실종자는 10명(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2명)이 됐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시는 신규 설치한 인도의 보도블록이 파손돼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보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덜컹' 거리는 새 보행로 긴급 보수

### 제주시, 29일부터 삼도1동 일대 인도 보수 공사 깨진 블록은 교체·흔들리는 블록은 지반과 고정

속보=제주시내 한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하게 파손돼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본보 11월 29일자 4면)에 따라 제주시가 긴급 보수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삼도1동 일대에 인도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파손된 곳이 많은 만큼 보수는 일부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깨진 보도블록은 새 것으로 교체되며, 단순 흔들리는 부분은 지반과 다시 고정시키는 작업이 진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측 관계자와 함께 오늘(29일) 오전 현장 점검을 했다"면서 "깨진 곳보다는 흔들리는 보도블록이 많은 점을 미루어 볼 때 오토바이와 같은 무게가 있는 물체가 위를 지나가면서 지반과

보도블록 사이의 접착력이 약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수는 앞으로 2-3일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상상황과 파손된 블록 양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제주시 삼도1동 일대에 노후화된 보도블록을 판석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새 보도블록이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깨지고 어긋나면서 걸을 때마다 덜컹거리는 것은 물론 블록 한쪽이 심하게 들리면서 생긴 틈에 보행자들이 넘어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지속 제기했음에도 몇 개월째 보수가 지지부진하면서 행정 당국의 빠른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하늘분화구 방문자센터 진·출입로 개선 공사 완료

서귀포시는 차량을 이용해 하늘분화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진·출입로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사에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운전자들이 일주도로 주행차로에서 하늘분화구 방문자센터로 바로 진입하고 출차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주차장이 없어 갖길에 주차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서귀포시는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대, 교통행정과, 건설과, 서흥동 등 관계 부서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위험 구간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우선 식수대와 화단 정비, 전주 이설로 하늘분화구로 향하는 운전자들의 시야를 확보하고 감속 차로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보행 공간과 안전 난간 설치, 진·출입 공간 확·포장이 이뤄졌고 하늘분화구 방문자센터 도로에는 노상 주차장 7면을 신규 조성했다.

진선희기자



한강작가의 시선을 따라 떠나는 제주4·3 런케이션 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마련한 2024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작가의 시선을 따라 떠나는 제주4·3 시범 런케이션에 나선 참가자들이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을 찾아 탐방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 트럭에 깔린 60대 사망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제주지역에서 60대가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제주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8분쯤 제주시 이호동의 한 공업사내 세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25t 트럭에 깔렸다는 신고를 소방당국이 접수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트럭운전자 B씨가 차량을 움직이던 중 A씨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 오피스텔 지하서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서귀포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달 29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46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소방당국이 접수했다.

이날 불은 해당 장소에서 유류 저장탱크 절단 작업을 하던 작업자

에 의해 자체적으로 꺼졌지만, 지하 탱크실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7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는 절단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남아있던 유류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